

조선시대 族譜에 게재된 山圖의 특성과 지형표현

— 『杞溪俞氏族譜』와 『潘南朴氏世譜』를 중심으로 —

李炯倫* · 成東桓**

The Characteristics and Expression of Landform in Feng-shui Map on Genealogical Table in the Choson Dynasty

Lee, Hyung Yun* · Sung, Dong Hwan**

요약 : 山圖는 풍수지리적 길지, 즉 穴과 명당의 국면을 표현한 지도이다. 산도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관찰한 자연지형을 풍수지리적 공간모형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에 소장된 족보 중 『杞溪俞氏族譜』와 『潘南朴氏世譜』에 게재된 2개의 산도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族譜에 게재된 산도의 제작기법, 지형표현의 특징을 산도의 구도, 시점, 중심지향적 지도, 물의 흐름, 산론 등의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 산도는 이원적 축척과 부감법을 사용하였으며 묘지를 중심으로 지형을 묘사하고 중요지형을 실제 지형보다 과장해서 표현하였다. 또한 묘지에서 관찰되지 않는 중요지형은 시점이동을 통해 관찰하고 이를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山論 부분에는 지리적 위치와 산맥의 흐름과 체계, 풍수적 특징, 묘지의 좌향과 주변지형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주요어 : 산도, 족보, 풍수, 지형표현, 중심지향적 지도, 이원적 축척

Abstract : A feng-shui map is a kind of map that features such propitious positions as fortune-bringing spots or ideal grave sites. The map is a representation of the most ideal natural terrains in terms of feng-shui perspectives. This study did research on two feng-shui maps registered on some genealogical tables in order to see how the map was drawn up. In addition,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landform expressions like the frame of the map, viewpoints, center-oriented mapping, water flow, mountain theories were delved in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the feng-shui maps for this research used the techniques of double scale and aerial view, described terrains with grave sites in their centers, and enlarged important terrains compared with surroundings for exaggeration purposes. In addition, other vital landforms not observed from grave sites were depicted with viewpoints moved and were represented in fine details. The part of mountain theories had the following points as their main subject matter: geographical locations, overall orientations of mountain ranges, topographical traits, grave seat directions and surrounding terrains.

Key Words : feng-shui map, genealogical table, feng-shui, expression of landform, center-oriented map, double scale of map

1. 서론

조선후기에 발간된 지도 중에서 민간인의 지도 사용에 대한 인식을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山圖¹⁾라 할 수 있다. 산도는 前代로부터 풍수적 吉地라고 전해오는 특정 지역이나, 조상의 무덤이 위치한 특정한 지역을 답사하고 얻은 공간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풍수적으로 空間을 구현한 지도이다(이형운 · 성동환, 2010a). 또한 현장을 답사하고 채득한 공간을 일정한 제작기법으로 표현한 지

도라 할 수 있다. 산도는 고지도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지도와는 달리 풍수적 개념에 입각해서 제작되며(오상학, 2005), 고지도의 분류 중에서 陵殿圖와 함께 특수지도에 속한다(노희방, 1979).

산도에 포함된 山論부분은 穴자리로 가정된 곳을 그린 산도와 풍수지리 이론을 결합하여 明堂空間을 설명하고, 주변의 행정중심지와 거리, 중요 자연지형 등을 글로써 기록한 것이다. 산도 중에서도 족보에 삽입된 산도는 지도로서의 가치와 그

* 대구가톨릭대 지리교육과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yumin1443@korea.com)

** 대구한위대 대학원 풍수지리관광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eng-shui & Tourism, Daegu Haany University)(dhsung@dhu.ac.kr)

시대의 지리적 인식을 잘 담아내고 있다.

조선 시대 때 산도 속에 내재된 풍수지리적 지형인식은 자연지형을 읽는 기준이 되어 官撰 및 私撰地圖에서 지형을 읽고 표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배우성, 1996).²⁾ 또한 이들 지도들의 지형표현에는 산도의 제작기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³⁾

산도에 관한 기록이 공식적인 문헌으로 나타난 것은 朝鮮王朝實錄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산도는 태실 및 왕릉, 도읍지를 선정하고, 묘지 관련 산송이 일어났을 때 국가 및 관청의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관료들은 왕릉선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그 당시의 지리인식을 대표하는 풍수지리 이론을 익히게 되었고,릉지 선정 과정에서 그런 산도를 통하여 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陵地 선정과정 및 陵地 완성 후에 그려진 陵園圖를 보면 기본적인 지형인식과 지형표현방식이 산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숙빈최씨의 葬地인 昭寧園의 지형지세를 표현한 산도인 「墓所圖形與山論」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이형운·성동환, 2010b).

조선초부터 왕실관련 족보인 선원록, 돈영보첩 등을 만드는 작업(신명호, 1998)에 참여하였던 관료들의 경험은 관료층의 족보기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산도에 의한 실증적 기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족보에 산도를 삽입하게 된 것은 중국 종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17세기 동성 중심의 내보형태를 갖춘 족보들은 중국 종보의 편제방식을 따르고 있다(최양규, 2007). 특히 중국 종보에서 산도를 삽입하는 편제 방식은 족보의 산도 삽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종보는 조선의 족보가 앞부분에 산도를 많이 게재하는 것과는 달리 像贊을 게재하는 난이 상당히 많다. 중국 종보에서 시조 이외의 산도를 모두 그려 넣지 않은 까닭은 圖가 많으면 화본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최양규, 2007).

조선후기에 들어와 고려후기와 조선전기를 거쳐 성장한 중법적 사회인식의 결과물인 족보의 양적 증가는 동일 선조에서 파생된 문파의 결속력 증대를 위해 족보 속에 산도를 삽입하는 경향을 동반

하게 되었다. 특히 산도는 시조 또는 명망 있는 선조가 모셔진 묘지를 풍수적 명당공간으로 형상화하였고, 그 그림을 본 후손들이 선조의 明堂發福을 함께 나눈다는 혈연적 결속력을 갖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족보 속 산도에 조상의 묘소를 명당으로 표현한 것은 조상을 길지에 모셨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풍수 發福을 공유한다는 믿음을 주어 종중구성원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모든 성씨와 본관에서 발간된 족보에 산도가 삽입되었던 것은 아니다.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서 상업자본의 발달에 의해 새롭게 부를 축적하며 성장한 가문에서도 족보를 발간하면서 산도를 삽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⁴⁾ 그런데 19세기 후반부터 발간된 산도는 삽입되는 양에 비례해서 질적인 하락을 동반하고 있다.

고지도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으로 자연을 읽고 표현한 산도는 그 시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기본 자료가 되며 조상들의 지형인식을 엿볼 수 있는 기초가 된다. 특히 족보에 게재된 산도는 산도제작의 기본 방식인 현장답사를 통해서 얻은 검증과 그 당시의 지리인식을 토대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자연관과 지리관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조선시대 족보에 게재된 산도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족보를 중심으로 발간의 추이와 변화 등을 분석하고, 18세기와 19세기에 발간된 족보에 게재된 산도 중 각기 하나씩을 선택하여 지형표현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분석대상 산도는 산도가 족보에 게재된 초기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1704(숙종 30)년에 발간된 『杞溪俞氏族譜』의 산도이다. 그 다음 분석대상 산도는 산도가 정착되기 시작한 시기의 작품으로 1831(순조 31)년에 발간된 『潘南朴氏世譜』중 중흥조로 불리는 야천선생의 墓所圖이다. 위 분석대상 산도는 18세기와 19세기에 발간된 족보에 삽입된 산도 중 지형표현 특성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대표적인 산도라 할 수 있다. 『杞溪俞氏族譜』의 산도는 18세기 초에 발간된 것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족보 중 산도가 게재되기 시작한 가장 초기의 산도이므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潘南朴氏世譜』의 야천선생 묘소도는 사료적 가치

가 높고 지형묘사가 뛰어난 작품으로 19세기 초에 발간된 족보에 삽입된 산도 중 대표성을 띠고 있다. 특히 이 산도는 중국에서 발간된 풍수서인 『지리탁옥부』와 『지리인자수지』에 수록된 산도의 지형표현방식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기에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족보에 삽입된 산도의 특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분석대상 산도에 표현된 지형 표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분석 대상 지역의 실제 지형이 산도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고 지형도 및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산도와 실제지형과의 차이를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2. 族譜에 게재된 山圖 개관

山圖의 역사는 족보의 역사와 그 脈을 같이 한다. 물론 초기에 제작된 족보들에서는 산도를 볼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필요에 의해 산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족보에서 할당되는 분량도 증가하게 된다.

족보에서 墓記와 함께 산도를 넣는 것은 조상의 묘소에 대한 기록으로, 후대에 조상묘지의 분실을 막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더불어 산도는 종법의 식과 결부되어 친족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명망 있는 조상이 풍수적 명당공간에 안치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문중의 자랑이었고 위안이었다. 그들이 나라에 녹을 먹고 유력가문이 된 것 또한 명당에 계신 조상의 음덕으로 믿었다. 따라서 유력한 가문일수록 산도를 그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산도라는 공간에 풍수적 명당국

면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및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족보의 山圖들은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족보에 게재된 산도는 先塋의 묘소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점에서 풍수지적 길지를 예언적 형식으로 서술한 秘訣書의 산도와는 차이가 있다. 족보의 산도는 이미 안치된 조상의 무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는 것에 주력하였다면, 비결서의 경우 아직 묘지로 활용되지 않은 미지의 명당공간을 풍수적 언어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비결서의 산도는 그림이 정교하지 못하고 글 또한 지리적 사실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추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족보에 게재된 산도에 비해 지도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족보 110여권 및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족보 1100여권을 조사해 본 결과⁵⁾ 15세기와 16세기에 발간된 초기 족보의 경우 산도가 삽입된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선조, 광해, 인조, 효종 때 발간된 족보들 속에서도 산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족보 속에 산도가 나타나는 것은 숙종이후부터이다.

청주한씨 족보의 경우 1617(광해군 9)년에 발간된 족보에는 산도가 게재되어 있지 않고, 1704(숙종 30)년에 발간된 『再校添修淸州韓氏族譜』(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도 산도는 없다. 100여년이 지난 1814(순조 14)년에 발간된 『청주한씨세보』에서 산도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청주한씨 문중의 경우는 산도의 삽입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19세기 이후부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산도를 삽입한 것으로

표 1.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성)별 족보 발간 및 산도삽입족보 발간 (1회)

순번	본관(성)	본관족보 발간본수	산도삽입발간 본수	산도삽입 비율	연대별 시기(년)
1	강릉김씨	1	1	1.0	1891
2	거창강릉유씨 동보	1	1	1.0	1786
3	강양이씨	1	1	1.0	1730
4	개성김씨	1	1	1.0	1901
5	경주이씨	22	1	0.05	1771
6	고흥유씨	4	1	0.25	1881
7	곡산연씨	1	1	1.0	1855
8	곤산배씨	2	1	0.5	1859

9	광산이씨	4	1	0.25	1881
10	김계조씨	3	1	0.33	1913
11	김해허씨	4	1	0.25	1813
12	능성주씨	5	1	0.2	1808
13	담양전씨	2	1	0.5	1901
14	무송윤씨	2	1	0.5	1874
15	밀양김씨	2	1	0.5	1919
16	밀양손씨	8	1	0.13	1910
17	사천박씨	1	1	1.0	1916
18	상주박씨	2	1	0.5	1852
19	서산정씨	1	1	1.0	1910
20	서촉명씨	1	1	1.0	1892
21	이씨선원록	13	1	0.08	1888
22	성주이씨	10	1	0.1	1863
23	수원백씨	5	1	0.2	1887
24	순창박씨	1	1	1.0	1917
25	순천박씨	2	1	0.5	1916
26	순흥안씨	10	1	0.1	1862
27	신천강씨	2	1	0.5	1919
28	안동권씨	5	1	0.5	1919
29	양천허씨	2	1	0.5	1911
30	언양김씨	4	1	0.25	1907
31	여흥민씨	3	1	0.33	1912
32	영천이씨	2	1	0.5	1845
33	용궁김씨	1	1	1.0	1914
34	울진장씨	1	1	1.0	1874
35	전주김씨	5	1	0.2	1916
36	정선전씨	2	1	0.5	1918
37	창령조씨	8	1	0.13	1901
38	창원유씨	1	1	1.0	1898
39	청송심씨	5	1	0.2	1917
40	탐진안씨	2	1	0.5	1917
41	통천최씨	2	1	0.5	1915
42	평산신씨	4	1	0.25	1873
43	평해구씨	1	1	1.0	1917
44	하남정씨	2	1	0.5	1919
45	하동정씨	10	1	0.1	1909
46	하양허씨	1	1	1.0	1905
47	한산이씨	1	1	1.0	1905
48	합평모씨	1	1	1.0	1914
49	합평이씨	5	1	0.2	1917
50	합천정씨	2	1	0.5	1854
51	해주오씨	8	1	0.13	1887
52	해평길씨	3	1	0.33	1895
53	행주기씨	1	1	1.0	1900
54	홍주이씨	2	1	0.5	1914
55	화순최씨	2	1	0.5	1905
56	횡성고씨	1	1	1.0	1806
합 계		195	56	0.27	-

표 2.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성)별 족보 발간 및 산도삽입족보 발간 (2회 이상)

순번	본관(성)	본관족보 발간본수	산도삽입발간 본수	산도삽입 비율	연대별 시기(년)
1	강릉유씨	8	4	0.5	1827, 1846, 1852, 1871
2	강릉최씨	11	2	0.18	1907, 1913
3	경주김씨	29	7	0.24	1758, 1771, 1839, 1843, 1873, 1887, 1898
4	경주최씨	23	3	0.13	1910, 1916, 1918
5	고령신씨	5	2	0.4	1850, 1866
6	고성이씨	7	3	0.43	1874, 1915(2)
7	곡부공씨	6	3	0.5	1800, 1911, 1917
8	광산김씨	20	2	0.1	1873, 1891
9	김령김씨	7	4	0.57	1891, 1901, 1904, 1913
10	김해김씨	45	14	0.31	1766, 1771, 1830, 1835, 1838, 1843, 1858, 1860, 1876, 1884, 1900, 1912, 1913, 1916
11	남양홍씨	7	3	0.43	1838, 1906, 1919,
12	남평문씨	17	4	0.18	1808(2), 1870, 1901,
13	단양우씨	6	2	0.33	1881, 1893
14	동북오씨	8	4	0.5	1793, 1866, 1895, 1916
15	무송유씨	5	2	0.4	1915, 1919
16	문화유씨	6	2	0.33	1847, 1917
17	밀양박씨	36	4	0.11	1898, 1902(2), 1914
18	부령김씨	11	3	0.27	1833, 1880(2)
19	사천이씨	4	2	0.5	1875, 1899
20	삼척김씨	4	3	0.75	1874, 1905(2)
21	안동김씨	5	3	0.6	1858, 1900, 1919
22	여산송씨	6	2	0.33	1797, 1854
23	연안차씨	5	3	0.6	1821, 1844, 1907
24	영광김씨	4	3	0.75	1829, 1875, 1908
25	영성정씨	4	2	0.5	1855, 1892
26	우주황씨	4	2	0.5	1804, 1856
27	울산박씨	3	2	0.67	1918, 1919
28	의령남씨	5	2	0.4	1809, 1900
29	인동장씨	6	2	0.33	1900, 1915
30	전주이씨	12	4	0.33	1807, 1808, 1847, 1851
31	전주최씨	19	5	0.26	1860(2), 1864(2), 1890
32	진산강씨	10	2	0.2	1845, 1899
33	진양정씨	10	3	0.3	1873, 1890
34	진양하씨	9	2	0.22	1818, 1914
35	진주강씨	9	3	0.30	1871, 1903, 1915
36	진주정씨	6	2	0.33	1874, 1901
37	창녕성씨	9	4	0.44	1709, 1851(2), 1901
38	청주한씨	6	2	0.33	1814, 1917
39	초계정씨	5	2	0.4	1763, 1918
40	충주지씨	6	2	0.33	1805, 1864
41	탐진최씨	5	2	0.4	1857, 1907
42	파평윤씨	4	2	0.5	1893, 1912
43	한양조씨	7	2	0.29	1919(2)
통계		417	131	0.3	-

표 3. 국립중앙도서관 산도삽입 족보의 시기별 발간 추세표(1919년까지)

연대별 시기	족보발간 횟수	빈도	산도발간 횟수	빈도
1600~1650	5	0.1	0	0
1651~1700	14	0.28	0	0
1701~1750	22	0.44	2	0.04
1751~1800	77	1.54	9	0.18
1801~1850	180	3.6	30	0.6
1851~1900	344	6.88	71	1.42
1901~1919	458	24.1	75	1.5
계	1,100	3.4	187	0.58

추측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족보들 중에서 110여개의 족보를 조사해 결과 1910년 이전에 발간된 족보 중에서 14권의 족보에서 산도를 찾을 수 있었고 현대에 출판된 족보 중 6권의 족보에서 산도를 찾을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족보 중에서 산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1704(숙종 30)년에 발간된 『杞溪俞氏族譜』에서부터이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족보 중에서는 1709(숙종 35)년에 발간된 『昌寧成氏族譜』⁶⁾에서부터 산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따라서 조선시대 족보에서 산도를 삽입하기 시작한 것은 숙종 이후로 추정된다.⁷⁾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족보 중에서 대동보, 세보와 족보, 과보형식을 총망라하여 1919년까지 발간된 것을 중심으로 1,100여 종을 조사하고 그 중에서 산도가 게재된 족보 총 187본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족보 중에서 기록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연대 추정이 불가능한 연대미상은 제외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本貫별로 보면 99개 본관의 족보에 산도가 삽입되었으며, 이 중에서 두 번 이상 발행한 문중이 43개 정도에 이른다. 김해김씨 문중의 경우 족보를 45번 발행하였으며, 그 중 14번 산도를 발행하였다. 또한 4번 이상 산도를 발행한 본관이 9곳에 이른다. 발행횟수와 산도의 발간 빈도 및 각 문중의 족보 발간의 정도의 빈도수는 <표 3>의 추세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600년부터 1919년까지 족보 발행 횟수는 총 1,100본으로 발행빈도가 3.4%에 이르고 있으며, 산도 발행의 경우 총 187본으로 발행빈도가 0.58%

에 이르고 있다.

18세기에는 일부 명망 있는 문중에서는 산도의 게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보인다. 이 시기에 발간된 산도들은 목판본이 대부분이고, 지형표현은 산악입체도법을 사용하였으며⁸⁾, 전체적인 구도는 부감법과 이중적 축적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산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山論을 기록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9세기에는 전대에 비해 족보의 보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다. 더불어서 산도가 게재된 족보의 수량도 전대에 비해 많은 증가세를 보인다. 또한 족보에 게재되는 산도의 분량도 많아졌다. 이 시기는 산도를 족보에 게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산도의 전체적인 특징은 전대의 제작기법을 답습하면서도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산도를 만들려는 실험정신을 보이는 산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⁹⁾

20세기 이후에는 산도가 양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때 발간된 산도들 중에는 내용이 부실하거나 조악한 것들도 많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족보 중에서 20세기 이후에 발간된 족보를 보면, 지도로서의 사실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풍수지리 산도의 제작기법을 무시한 산도들이 대단히 많다.

현대에도 전통 산도의 제작기법을 답습한 족보를 찾아볼 수 있다. 현대에 발간된 족보에 삽입된 산도는 조선시대에 발간된 족보 속에 산도를 필사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보관된 목판본을 탁본한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것에 대한 조사는 다음으로 미루도

록 한다.

숙종 이후에 발간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족보 중 초기 산도의 형태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기계유씨족보』(1704년)와 『창녕성씨족보』(1709년)를 들 수 있다. 18세기 초 및 19세기 초에 제작된 족보에 게재된 산도는 지리연구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고,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이 많다. 19세 이후부터는 산도가 일반화 되면서 중국의 풍수서인 『地理人子須知』에 수록된 山圖에서는 볼 수 없는 세밀한 묘사들이 나타나 山圖가 한층 다양하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 산도들이 게재된 형태를 보면 족보에 산도를 삽입할 때 선대에 그려진 산도를 그대로 채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현상은 목판본을 중심으로 후대에 재발간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중중에서 파가 갈라져 나오면 파보를 만들게 되는데 그 파보는 기존의 산도에서 파의 시조 산도를 증보하여 게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부 족보의 경우에는 족보를 重修譜하면서 산도를 새롭게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산도는 기존의 산도를 모방하여 그리지만 세부적인 묘사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족보에 게

재된 산도의 경우 산도의 제작자, 제작 시기 등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창녕성씨의 족보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족보에서는 족보에 제작자를 밝히는 경우도 있다.

족보에서 산도가 위치하는 부분은 卷首 또는 附錄으로 삽화되는 경우가 많다. 권수의 경우 舊序, 舊跋, 序, 古蹟, 世系圖, 墓山圖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많다. 四周雙邊 또는 單邊의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하나의 테두리를 두어 시조의 누구누구의 분산도 또는 ○○○公墓圖의 형식으로 기록한다. 또한 사각형의 테두리 위에 같은 형태로 기록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테두리 바깥쪽 원편 상단 또는 하단에 ○○○성씨 묘도 또는 ○○○성씨파보 묘산도, 분산도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이 산도가 누구의 묘소인지 밝히면서 그 출처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3. 『杞溪俞氏族譜』山圖의 지형표현 분석

『杞溪俞氏族譜』¹⁰⁾는 족보가 內譜 형태로 정착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파보라고 할 수 있다. 俞命威의 跋文에 따르면 『기계



출처: 『杞溪俞氏族譜』(1704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1813-00), 20.5×28.3cm

그림 1. 『杞溪俞氏族譜』始祖山圖 및 山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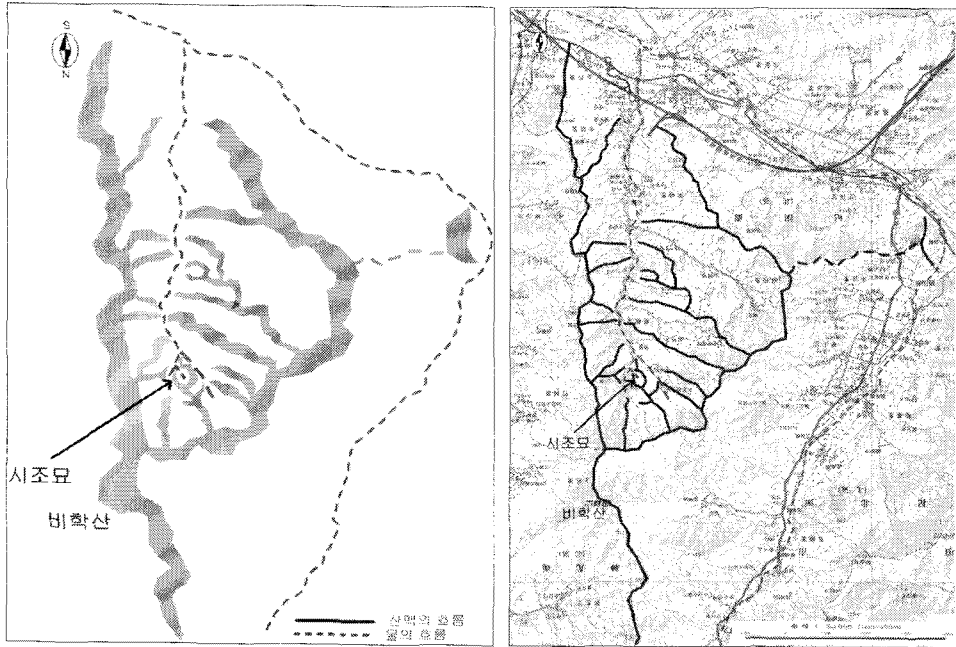


그림 2. 지형도를 바탕으로 한 기계유씨 시조묘의 산맥도 및 1/50,000 지형의 산맥흐름도

유씨족보』는 1645(인조 23)년에 처음 만들어진 「乙酉譜」와 金種耘의 『氏族源流』를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乙酉譜」의 증보 형태를 취하고 있다.¹¹⁾ 본 연구에서는 『杞溪俞氏族譜』 甲申譜에 삽입된始祖 俞三宰 墓의 山圖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시조 유삼재의 묘를 그린 산도가 「을유보」에도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래의 산도는 18세기 초에 발간된 것으로 족보에 산도가 게재되기 시작한 초기 산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1) 전체 구성 및 구도

始祖山圖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四周單邊으로 테두리를 이루고, 테두리 상단부분은 검정 실선으로 경계를 두었다. 그리고 상단 경계내부에 “始祖俞三宰墳山之圖”라 기록하고 산도의 주인을 명시하고 있다. 사주단변 내부의 대부분의 여백은 산도를 그리고 다음 장에 짝맞하게 산론을 서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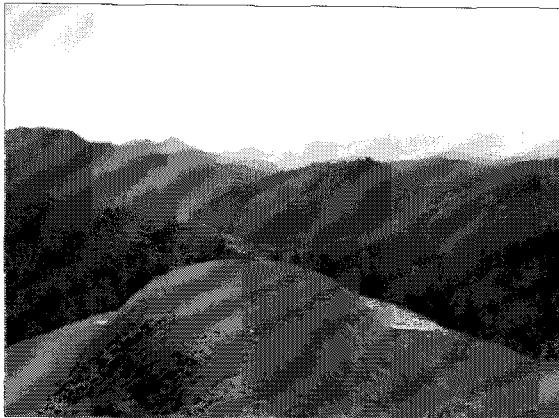


그림 3. 杞溪俞氏 始祖墓 주위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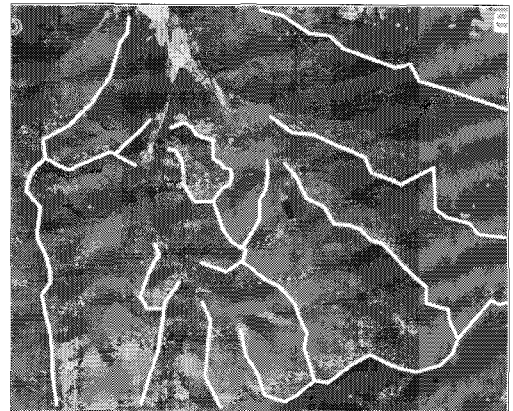


그림 4. 시조묘 위성사진

(www.congnamul.com)



그림 5. 기계유씨 시조묘부분의 산도 확대



그림 6. 『대동여지도』의 산맥흐름

산도의 구도를 보면 그림 중심에 시조묘를 두고, 주변 산맥의 흐름이 시조묘를 둥글게 에워싸듯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풍수지리 명당 공간을 형상화한 표현으로 풍수지리 명당도를 기초로 그려진 것이다. 지형도를 바탕으로 그린 산맥도 <그림 2>와 비교해 볼 때 시조묘를 둘러싼 산맥들의 표현이 약간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祖宗山에서 主山까지 山脈의 線的 緣脈性이 강조된 점인데 이는 풍수지리 명당관이 산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도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적 확실성을 갖게 하기 위해 산맥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는데,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한 능선과 斜面의 緩·急을 山岳立體圖法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¹²⁾ 산악입체도법을 이용한 산의 모습을 살펴보면 완경사부분을 묘사한 실선은 상당히 예리한 붓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산도 전체에서 느껴지는 산맥들의 곡선적 움직임과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묘지주변의 빛금 아랫부분은 검은색 실선으로 사면과 평지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5).

2) 산도의 시점

『기계유씨족보』의 시조묘 산도는 묘지 주변 자연공간을 反透視法과 俯瞰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그림 5>를 보면 시조묘 주변의 산은 뒤로 누워 있는 입체도법으로 그리고 있는데,

시조묘가 위치한 산은 하늘에서 정면으로 내려 보듯이 표현하였다. 이는 부감법의 중심이 시조묘에 있으며 여기서 관찰되는 산들의 모습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변 산들의 모습은 묘지에서 조망하는 높이에서 관찰되는 산들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주변의 중요한 산들은 실제 크기보다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과장된 표현은 풍수지리 명당관에 입각하여 산의 모습을 과약하고 형상화하는데서 오는 의도적 과장이라 할 수 있다.

중요 풍수공간인 始祖墓와 주변 경계지점의 방위를 나타내는 “慶州府”(〈그림 1〉의 왼쪽 상단부분) 및 “동해”(〈그림 1〉의 왼쪽 중간)의 축척표현은 이원적이라 할 수 있다. 시조묘 산도인 <그림 1>과 축척 5만지형도를 기본으로 산맥흐름도 <그림 2>를 비교해 보면, 전체 공간 크기에 따른 점유비율을 <그림 2>와 비교했을 때 시조묘가 위치하는 부분이 지도에서 상당히 적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산도의 경우 시조묘 부분이 주변 지형에 비해 상당히 과장되게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원적 축척 때문에 묘지 주변공간은 세밀하게 묘사해서 그리는 반면, 주변 지역은 소략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6>의 『대동여지도』의 산맥 및 물의 흐름과 비교해 보더라도 시조묘 산도가 산맥의 흐름과 자연지형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척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산맥의 흐름은 『대동여지도』보다 사실적으로 표현되



그림 7. 동해 및 경주부와 치슬령부분 산도 확대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를 보면 시조묘 좌측의 徐墳과 우측의 浮雲寺를 표시하고 있는데, 부운사의 경우 검정 실선으로 지붕과 몸체를 그리고 있다. 묘지주변의 공간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더불어서 주변 구조물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시조묘 위치비정을 주변 지형을 통하여 확실히 드러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을 보면 묘지에서 멀리 떨어진 경계지역인 경주부의 경우 글자로만 그 위치를 비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략한 표현은 관찬지도에서도 회화지도와 비견된다.

산도에서 이원적 묘사는 묘지에 바라보는 시각적 한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러한 시각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점이동을 하고 있다. 시조

묘 산도에서도 묘지에서 관찰되지 않는 “경주부”와 “동해” 주변의 지형을 표현하기 위해 시점이동을 감행하고 있는데, 시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산도를 그리면서 실제 관찰이 가능한 부분은 세밀하게 표현하고, 산도의 위치를 알려주는 원거리 행정중심지 및 주요 경계지형 등은 간략하게 표현하는데 묘지에서 멀어질수록 지형표현의 정확성은 반비례하여 떨어진다.

3) 중심지향적 표현

山圖의 모든 방향은 穴處로 비견되는 묘지를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다. 시조묘 산도에서 방향성을 추적하면 지도의 윗부분이 남쪽인데 慶州府와 치



그림 8. 시조묘 주변 사격 확대



그림 9. 묘지에서 관찰되는 砂格의 사진

술령곡 위쪽에 丙字를 써서 방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림 7>을 보면 朝山인 치술령(鴉述嶺)¹³⁾의 방위와 山圖 전체의 방위를 표시하는 丙자는 시조묘의 좌향이 된다. 병자 아래의 산의 형태는 온화한 금성체의 모습¹⁴⁾으로 묘지를 향해 다정하게 서있다. 그리고 시조묘를 중심에 두고 주위의 산들(사격)은 방위와 함께 비중있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실제 관찰되는 것보다 과장된 것으로 오성체를 중심으로 시조묘가 풍수적 길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8>과 <그림 9>를 비교해 보면 시조묘에서 관찰되는 庚과 西方位 砂格은 사진에서 관찰되는 높이 보다 산도에서는 높고 비중있게 표현되어 있다. 산도에서 지형과 풍수형국을 설명하고 있는 글자들을 보면 방향성을 잃고 자유롭게 배치된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글자들은 묘지와 산을 중심으로 썩어져 있다. 즉 글자들은 자기의 배경이 되는 사물을 향해 방향을 두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산을 배경으로 썩진 글자들은 산을 향해서 누워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일부 글자는 溪水를 중심으로 썩여진 것도 있다.

4) 물의 표현

물의 표현은 풍수지리 명당도의 水波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內水口 및 기계천의 溪水는 점선으로 나타내고, 동해로 흘러가는 황산강은 두개의 실선으로 표현했다. 이것은 古地圖에서 江을 표현하면서 소략하게 표현하는 雙鉤法과 연관성이 있다. 쌍구법은 일반적으로 나무의 모습을 소략하게 표현하여 단조로운 모양을 나타낸다(한영우 등, 2003). 東海라고 쓴 바다부분은 출렁이는 물결로 표현하기 위해 水波描를 사용하고 있다. 그 형태는 물결의 윤곽을 나타내는 곡선들과 그 안에 더해진 짧은 선들이 정연하게 섞여 있는 모습이다. 이들 물결은 각기 방향성을 갖고 정연하게 흔들리는 파도와 같은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풍수지리 명당도에서는 혈처 앞의 내수는 한 줄의 점선으로 소략하게 표현하는 경우와 생략하는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림 5>를 보면 물은 徐墳 아래에서 시작하여 시조묘 우측을 환포하면서 흐르고 있다. 이것은 명당을 감싸고 돌아가는 內水を 점선으로 표현한 것으로 내수의

존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묘소도 우측 하단부분의 여백에는 간략하게 물의 흐름을 설명하는 글을 첨가하고 있다. “左良得水右辛得水已破”(좌측 간방위에서 시작한 물과 우측 신방위에 시작한 물이 혈 앞에서 모여 사망위로 빠져나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풍수지리의 요체인 물의 得水와 破口를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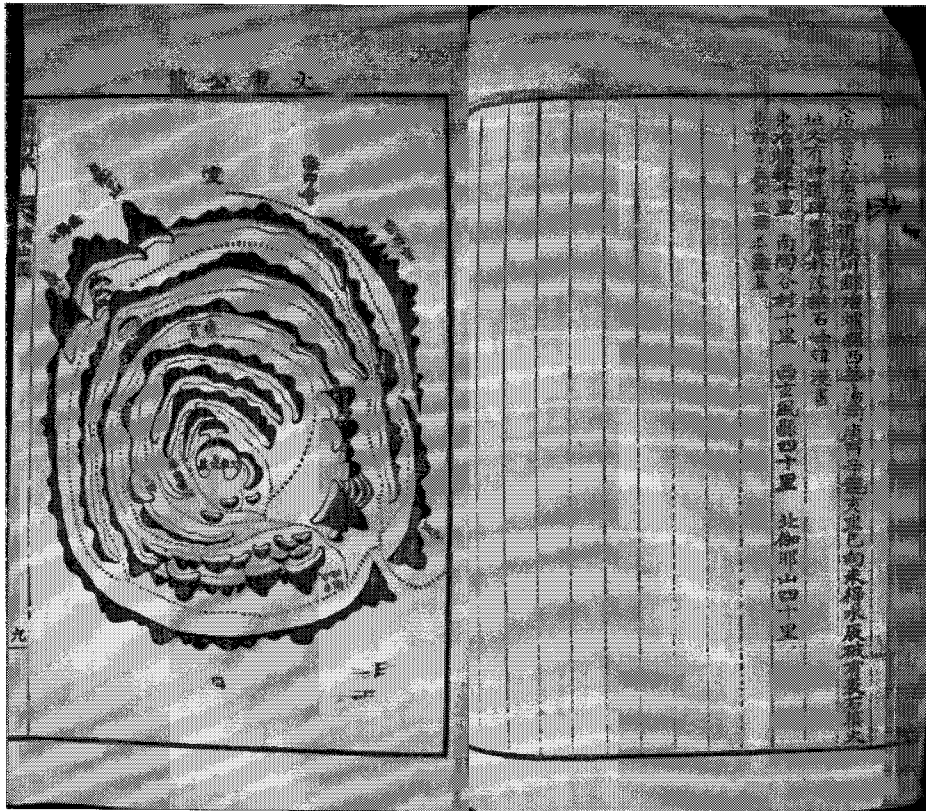
5) 산론

별지형태로 수록된 산론에는 시조의 묘지는 慶尙道 慶州 杞溪縣 堂洞(현재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미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坐向은 壬坐 丙向이고, 表石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묘가 上下墳이라 기록하고 있다. 묘지를 중심으로 그 지리적인 위치를 추적해 보면 남쪽 경주에서 육 십리, 서쪽 杞溪古縣에서 칠·팔 리, 서북쪽 伊峴에서 십 오리, 永川郡에서 칠 십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⁵⁾ 그런데 이 묘지의 風水的 형국을 말하는 陽形은 보이지 않는다. 산론의 내용은 지리적 위치와 풍수적 요소를 함께 담고 있다고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위의 山圖를 현대의 지형도와 비교할 때 전체적인 지형표현의 정확성은 떨어진다. 그러나 묘지주변에 있는 入首脈의 過峽 및 起伏의 표현, 묘지주변의 산맥의 흐름은 현 지형도와 비교했을 때 매우 유사하게 그려져 있다. 특히 묘지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 지형은 상당히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산도의 전반적인 구도는 축척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지형의 사실적 표현과 지리적 위치에 대한 설명은 지도로서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潘南朴氏世譜』山圖의 지형표현 분석

『潘南朴氏世譜』¹⁶⁾는 英正祖代를 지나 純祖에 접어들면서 족보의 발간은 증가세를 거듭하고, 더불어 산도의 삽입도 일반화되어 가는 과도기에 발간된 족보라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반남박씨세보』해제를 보면 本譜에 앞서 1642(인조 20)년, 1689(숙종 9)년, 1766(영조 42)년 등 3회에 걸쳐 족보가 간행되었다고 전한



출처: 『潘南朴氏世譜』(1831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1848-00), 38.5×24.3cm

그림 10. 『潘南朴氏世譜』 文康公墓의 山圖 및 山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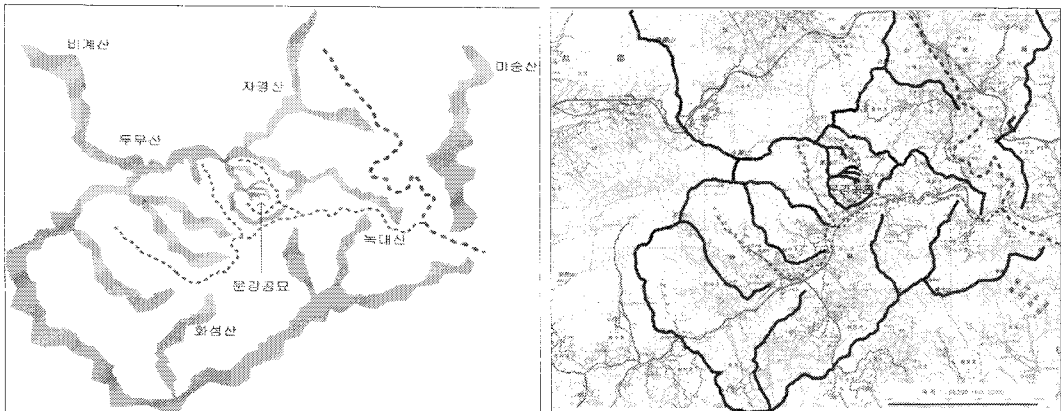


그림 11. 지형도를 바탕으로 한 문강공묘의 산맥도 및 1/50,000 지형도의 산맥 흐름도

다. 그리고 간행이 오래되면 修造의 어려움이 있어서 1766년에 간행된 丙戌譜를 중심으로 修譜, 간행하게 되었다고 박종훈의 序에서 밝히고 있다.¹⁷⁾

1) 전체 구성 및 구도

文康公 묘소도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四周單邊으로 테두리를 이루고, 테두리 윗부분에 “文康公墓”라 쓰고 산도의 주인을 명시하고 있다.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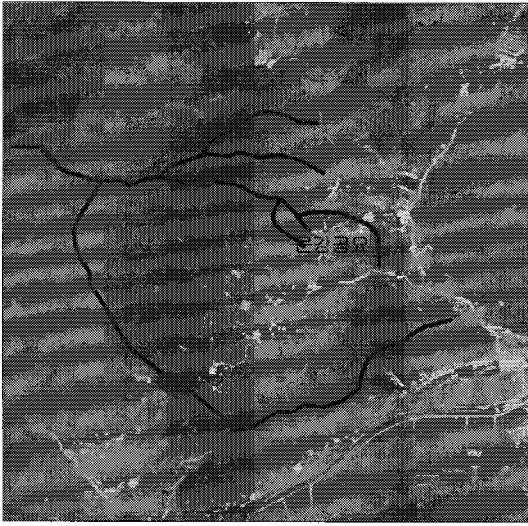


그림 12. 潘南朴氏 文康公墓의
위성사진(www.congnamul.com)

주단면 내부의 공백은 산도를 그리고 있다. 묘지의 위치를 비정하기 위한 주변의 중요한 지형은 명칭이 표시되어 있다. 왼쪽 상단부분에 “墳山圖”라 기록하고 족보에서 산도를 기록한 부분임을 알려 주고 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짝맞하게 산문을 덧붙이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潘南朴氏世譜』의 경우 족보에 게재된 산도가 그 이전에 발간된 족보에도 삽화되었는지 자료를 찾을 수 없으나 묘소도의 삽입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순조 이후에 삽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족보의 경우 시조묘 및 시조묘가 없는 경우엔 墓壇의 산도가 가장 먼저 게재된다. 반남박씨 墳山圖目錄을 보면 나주지역에 위치한 先祖戶長公墓와 進士公墓圖 이외에 17개 지역의 선조들의 묘소도를 게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문강공 산도가 있다.

문강공 산도는 산도의 전체적인 구도의 중심에 문강공의 묘를 두고, 산맥들이 중첩적으로 환포하는 배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환포성은 구불구불한 낮은 산릉의 연속성으로 산맥의 생동감과 역동성을 나타내고, 부드러운 산등성이의 흐름은 산들의 공간적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산맥들이 가지를 펼치고 문강공 묘를 향해 내려오는 모습은 풍수적 길지임을 암시하고 있다.

문강공 산도에서 볼 수 있는 작은 구릉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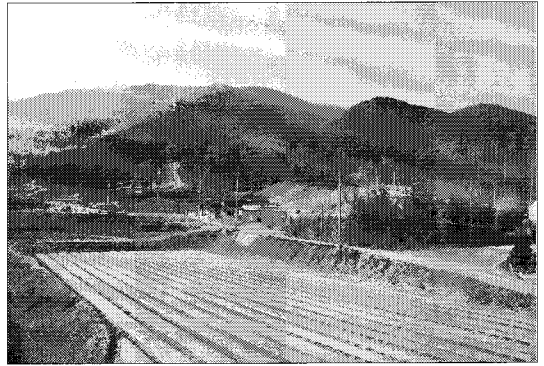


그림 13. 潘南朴氏 文康公墓 주위전경

과 새가 날개를 펼치는 듯한 산맥의 모양은 중국 청나라 때에 발간된 풍수서인 『增補地理琢玉斧』의 산도 패턴을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탁옥부』 이전에 발간된 『地理人子須知』의 경우 산맥의 흐름을 보면 산의 기복이 크면서도 강하고, 예리하면서도 산의 단면적이 큰 경향의 산도를 그리고 있다. 이러한 산도의 표현은 후대에 가면서 산의 모습이 원만해지고 산의 단면적이 적은 낮은 산으로 선적 이미지를 강조한 山形圖로 바뀌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문강공 산도는 『지리인자수지』 이후에 발간된 풍수서의 산도를 모태로 하여 그려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增補地理琢玉斧』의 順結二堂前合襟之圖(그림 14)의 산맥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다. 여기서 유추해 보면 『潘南朴氏族譜』 文康公墓圖의 경우는 풍수지리 龍格¹⁸⁾ 중에서 順龍圖를 기본으로 한 그림이고, 이것을 그리는데 참여한 地官 또한 문강공 묘의 용격을 順龍으로 본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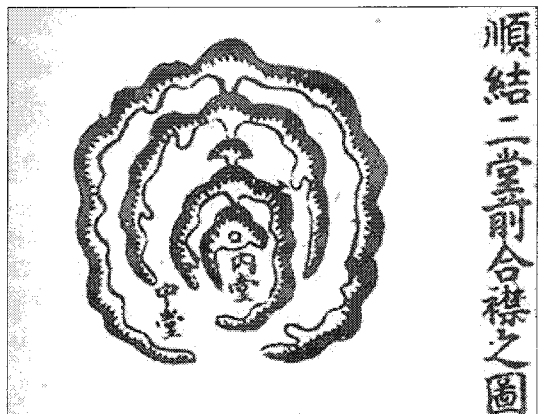


그림 14. 『增補地理琢玉斧』 順結二堂前合襟之圖

판단된다.

2) 산도의 시점

문강공 산도 또한 풍수공간을 이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시점은 反透視法과 俯瞰法을 사용하고 있다. 보통 산도의 경우에 표현되는 산의 모습은 혈처로 간주되는 묘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하지만 문강공 묘소도의 경우 묘지에 조망하는 높이에서 산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의 선적 흐름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산들을 표현함에 있어 주변 산들의 높낮이와 시각적 한계에서 오는 변형된 산형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산과 산 사이의 공간적 차이에서 오는 다양함도 보이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 물의 흐름도 단조롭다.

산맥의 흐름을 중심으로 문강공 묘산도를 살펴보면 문강공 묘가 있는 내적 공간과 기타 주변의 자연지형을 묘사하는데 차이를 두는 이원적 구성을 하고 있으나, 다른 산도에서처럼 현격한 이원적 구도는 느껴지지 않는다. 묘지에서 관찰할 수 없는 중요 거점 지역의 산들을 표현하기 위한 시점 이동 또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위의 산도는 혈처에서 바라보는 자연 현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보다는 선적 이미지를 이용한 원형의 풍수공간을 만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산맥의 선적 이미지의 강조는 종산에서 조산 그리고 주산으로 이어지는 산맥의 연맥성을 강조한 것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그림 15>을 보면 종산

인 비계산에서 문강공묘까지는 상하의 선운동인 起伏格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 검은 실선으로 앞뒤의 산을 연면히 이어주고 있다. 그리고 해인사와 자경산 중간에 써진 亥라는 글자는 산도의 전체적인 방위를 가리키고 있다. 즉 문강공 산도는 묘의 좌향인 亥坐와 위의 글자의 해자가 위아래로 구성된 북서향의 그림이다. 이것은 현재 지형도의 도판 위쪽이 늘 북쪽만을 가리키는 것과 대비되는 산도의 특징이다. 묘소도의 방향인 亥좌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야산은 북쪽에 위치하고 현재 지형도와 비교하면 그 위치가 맞아 떨어진다.

산도에서 왼쪽 백호를 관장하는 산맥 흐름을 살펴보면 비계산에서 오두산(지형도의 오도산)을 거쳐 산도의 오른쪽 하단의 외수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지형도에서는 비계산에서 시작하여 두무산(산도의 두모산)을 거쳐 오도산(산도의 오두산)으로 이어지는 산맥의 흐름이 된다. 산도에서 이러한 지형 인식의 오류는 목측에 의한 시점 이동을 통하여 산맥의 흐름을 관찰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산맥의 선적 연맥성은 흰색과 검정색을 대비한 稜線과 斜面の 緩·急의 傾斜를 표시한 山岳立體圖法으로 대부분을 표현하고 있다. 문강공 묘의 宗山이라 할 수 있는 비계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좌측으로 우뚝 솟은 조두산을 지나 '申氏祖地'의 아랫부분까지 감싸 흐르는 외백호를 관장하는 부분과 가야산에서 산도의 우측 하단에 있는 고령까지 감싸고 있는 외청룡을 관장하는 부분은 검정색의 단색으로 이루어진 능선과 산면의 산악평면도로 표현하고 있다. 산악평면도에 의한 산맥의 흐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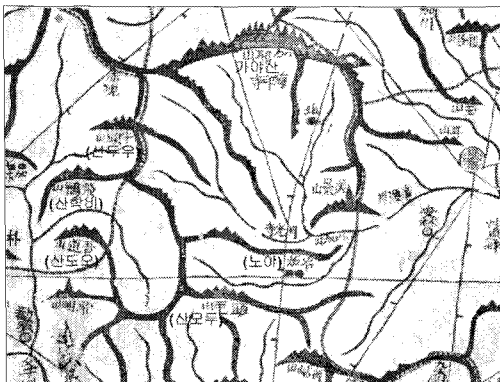


그림 15. 『대동여지도』의 산맥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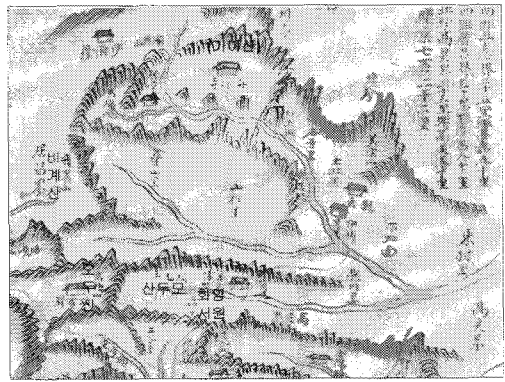


그림 16. 『해동지도』의 산맥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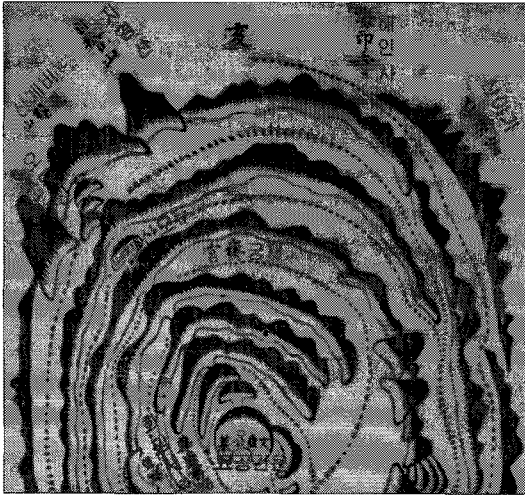


그림 17. 문강공묘 주변의 지형

산맥이 감싸고 있는 내부영역에 안정감을 더해준다. 그런데 <그림 17>을 보면 가야산과 飛鷄山 사이에 큰물이 흐르고 있어 조종관계의 연결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¹⁹⁾ 실제 지형에서 보면 가야산 의상봉에서 비계산을 지난 자경산으로 흐르기 전에 한 가지가 남동 측으로 뻗어 묘지에 이른다. 즉 풍수지리적 산맥 체계로 보면 가야산은 태조산, 비계산은 종산, 두무산이 조산되는 것이다. <그림 15>와 <그림 16>의 고지도를 보면 가야산에서부터 시작한 산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문강공 묘산도에서 산맥의 시작은 비계산에서 시작하여 두무산, 그리고 윤산을 지나 문강묘에 이르는 산맥체계를 하고 있다. 물론 윤산은 다른 산의 표기와 달리 산맥의 왼편 아래쪽에 尹山이라 기록하고 있다. 산의 명칭을 보면 비계산과 자경산은 현재에도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頭帽山은 현재 지형도에서 斗霧山으로, 烏頭山은 오도산인 것으로 판단된다.²⁰⁾ 산도의 기록된 몇 가지 건물들을 살펴보면 문강묘의 왼편에 있는 화암서원²¹⁾은 현재 멸실되고 없으며, 문강공묘 위쪽에 있는 재궁은 문강공묘 부근으로 옮겨져 있다.

3) 중심지향적 표현

문강공의 묘를 중심으로 구성된 내명당의 지형 공간은 개략적으로 약 10,000분의 1 정도의 축척으

로 표현되었다. 문강공의 묘가 있는 산의 형세는 실제 지형도상의 축척과 비교해 보면 매우 과장되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과장된 표현은 묘지가 위치한 지형의 풍수형국을 金星體의 窩穴로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문강공 묘산도는 선적 흐름을 강조하다보니 주변 지형들이 문강묘를 環抱하는 모습들이 과장되게 표현되었고, 생략법을 이용한 지형 표현에서 약간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림 15>의 『대동여지도』와 <그림 16>의 『해동지도』의 산맥 흐름과 비교해 보면 문강공 묘산도의 環抱性を 극명하게 볼 수 있다.²²⁾ 그리고 실제 지형도와 비교해 보면 산맥의 흐름과 모양은 문강공 묘산도가 더 정확하게 그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문강공 산도 또한 생략법을 사용하여 수많은 가지를 생략하고, 명당공간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산맥의 흐름과 산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지형도를 기초로 한 산맥도 및 1/50,000 지형도의 능선을 연결한 산맥 흐름도와 비교해 보면 산의 흐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4) 물의 표현

水의 표현은 한 개의 검은 점선으로 통일해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물의 흐름은 왼쪽 상단에서 시작한 물들이 묘가 있는 내명당과 ‘신씨조지’라 기록된 지역의 외명당에서 合水되고, 오른쪽 하단부의 고령지역에서 곡선을 그리면서 흘러가고 있다. 즉 물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북서쪽에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지형도와도 일치하고 있는데, 물의 흐름을 통해서 지형의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5) 山論

산론 부분에는 문강공의 묘는 경상도 함천군 아로현의 서쪽에 위치한 화양동에 있다고 기록하여 지리적 위치를 밝히고 있다. 龍脈은 庚西向에서 來脈하여 申向으로 變格하고 行龍하는 가운데 亥坐巳向으로 자리를 잡았다. 破口는 未得水에 辰破로

서 전체적인 풍수형국을 이루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원국내에 표석 등이 위치하고, 신도비가 있는데 박순이 찬하고 석봉 한호가 글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²³⁾

후손들에게 지리적 위치를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 사방의 주요 거점지역과의 거리를 설명하고 있다. “東治爐縣十里, 南陶谷村十里, 西玄風縣四十里, 北伽伽山十里”²⁴⁾라 적고 있어 후손이 야로현이나 현풍현에서 묘를 찾아오는 거리를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산도에는 표시가 없지만 원국에 지손으로서 오세손인 봉규의 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⁵⁾ 이 설명 또한 후손들이 묘가 위치한 局內에 들어 왔을 때 많은 묘지 중에서 문강공의 묘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배려로 생각된다.

5. 결론

山圖는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지형을 읽고 표현하는 지도이다. 산도를 통해 우리는 산도를 제작했던 당시 사람들의 이상적인 자연공간을 재현해 낼 수 있고, 당시 사람들의 지리인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그들이 이상적이라 생각하고 관찰한 지형을 풍수지리적 공간모형에 빚대어 표현한 산도는 당시의 지리인식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족보 중에서 산도가 게재된 족보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분석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족보에 게재된 산도 중 18세기에 제작된 『기계유씨족보』와 19세기에 제작된 『반남박씨세보』에 게재된 산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위 족보에 게재된 산도의 분석을 통해 산도의 제작방법, 지형표현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해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족보에 산도가 게재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초 숙종 이후이다. 영·정조 시대의 정착기를 지나 순조 이후부터는 족보 속에 산도를 게재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둘째, 분석 대상인 두 산도는 이원적 축척과 부감법을 사용하였으며, 중심지향적 지도로 묘지를 중심으로 지형을 묘사하고 중요 지형을 실제 지형

보다 과장해서 표현하였다. 또한 묘지에서 관찰되지 않는 중요지형은 시점이등을 통해 관찰하고 이를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셋째, 산론 부분은 대개 도입부분에 지리적인 위치를 알려주고, 이어서 산맥의 흐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또한 풍수지리적인 관점에서 묘지의 좌향과 주변 지형을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묘지가 있는 주변의 지형 및 의물들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넷째, 족보에 게재된 산도는 조상의 묘지를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 이외에도 풍수적 명당발목을 공유한다는 의식과 중증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

주

- 1) 산도는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다. 족보에 게재된 산도의 경우 先塋圖, 墳山圖, 墓山圖, 墓所圖, 墓圖 등으로 불리고, 비결서의 경우에는 명당도, 용혈도, 명산도, 산수도 등으로 불린다. 본 논문에서는 산도의 명칭을 족보에서 주로 사용하는 墓所圖와 본래의 명칭인 산도로 혼용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 2) 배우성(1996)에 따르면 古地圖에 투영된 人文的 地理觀으로 風水地理를 들고 있다. 이러한 풍수지리적 지리관이 투영되는 배경으로 陰陽五行說과 亥坐巳向論, 地圖製作의 相地官의 참여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官撰地圖에 보이는 풍수지리적 표현으로 方色 表現과 脈 중심의 國土理解와 有機體的 國土觀, 풍수지리적 明堂觀에 의한 지도의 外形表現, 地人相關論을 들고 있다. 특히 풍수지리적 명당관에 의한 지형의 외형표현으로 중국의 풍수고전인 『琢玉斧』의 順勢逆局圖를 소개하고, 『해동지도』의 읍지형 표현에서 이것을 차용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 3) 이형운(2010)에 따르면 官撰地圖 제작방식이 山圖 제작기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근거를 든다면 太祖 小祖山圖式의 地形表現에 의한 山脈의 有機體的 表現, 祖宗父母胎息孕肉圖式 地形配置, 邑治 및 重要 地形空間을 풍수지리 穴의 四象으로 표현한 점을 크게 들 수 있다. 특히 祖宗父母胎息孕地圖式의 地形表現方式으로 주요 邑治空間까지 산맥의 緣脈性을 강조하는 표현, 읍치공간을 橫으로 지나가는 물의 흐름과 읍치공간 앞에 펼쳐진 자연지형의 散點配置 등은 『海東地圖』, 『廣輿圖』, 『輿地圖』 등의 많은 고지도에서 확인되고 있다. 세부적인 표현방식에서 보면 屈曲과 逶迤의 入首脈 表現과 重要 入首脈의 과장, 山岳立體圖와 山岳平面圖式을 응용한 지형표현, 穴을 중심으로 한 지형과 지물, 글자의 배치방식을 들 수 있다. 특히 고지도를 설명하는 기록들을 보면 山圖의 山論式 나열이 많이 보이고 있다.

- 4) 이수건(2004)에 따르면 16세기 이래 민중의 성장에 따른 천민층(무성층)의 양민화(유성화)와 외·호양란으로 인한 신분질서의 해이로, 17세기 후반부터 족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양민가문이나 신흥세력을 막론하고 모두 세계와 조계를 새로 정리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조선 후기는 족보가 없으면 상민으로 전락되어 군역을 져야하니 상민들은 양반이 되려고 관직을 사기도 하며 호적이거나 족보를 위조하여 새 양반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산도의 증가 및 질적 하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족보는년대 구분 없이 산도가 들어 있는 족보를 조사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족보는 그 양이 방대하여 1919년 이전에 발간된 족보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 6) 창녕성씨의 경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한 족보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한 족보 모두 1709년에 발간된 것이다. 하지만 편찬자가 달라 같은 족보로 볼 수는 없다. 두 산도의 비교 연구는 다음으로 미룬다.
- 7) 숙종이전에 발간된 족보에서 산도가 게재된 사례를 찾아 못했으므로 숙종이전에 게재된 자료를 찾기 전까지는 숙종 이후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 8) 산악입체도법이란 흰색과 검정색을 이용하여 능선과 사면의 경사도를 표현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검정색으로 급경사면을 표현하고 흰색 바탕으로 완경사면을 구성하는 표현방법을 말한다.
- 9) 1869(고종 6)년에 발간된 『秋溪秋氏族譜』(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경우 산의 능선을 표현할 때 예리한 실선으로 산마루에서 아래로 곧게 그어 표현했다. 이 도법은 조선 말기에 발간된 비결서의 능선표현과 일치하고 있다.
- 10) 俞命威(朝鮮)等編, 『杞溪俞氏族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1704(숙종 30, 甲申)년. 목판본, 8권·별록·부록으로 구성된 합3책의 목활자본(20.53×28.3cm)으로 3책에는 별록, 塹壑圖이 있으며, 산도는始祖 俞三宰를 비롯한 14인의 墓圖와 각 산도의 별지에 山論이 있다.
- 1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杞溪俞氏族譜』(奎 1813) 해제 참조.
- 12) 이러한 입체도법은 산들이 뒤로 누워있는 형태로서 고지도의 외반식 지형표현과도 일맥상통한다. 위의 산도에서 산의 형태를 보면 산의 정상부분에 검게 칠해진 부분이 급경사를, 삼베를 빗어 놓은 듯한 모양의 하단부가 완경사를 나타낸다.
- 13) 산도에서 하단부의 비학산과 상단부의 치술령은 그것을 뜻하는 글자와 함께 그 모양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비학산이 宗山, 치술령은 朝山으로 묘의 방향과 지도의 전체적인 방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묘지 옆에 세워진 비석을 보면 “飛鶴山爲祖塋述嶺爲案坐壬丙向”이라 기록하고 있다. 즉 묘지는 비학산이 祖山이고, 치술령이 朝山으로 方位案이 되어 壬坐丙向으로 방위를 잡고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풍수지리의 형기론적인 법률

- 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4) 족보에 게재된 산도에서는 풍수지리 명당도의 영향을 받아 산의 모습을 목화토금수의 다섯 가지 즉 오성체로 대별하여 그린다. 실제 자연에서 산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산머리의 모양을 다섯 가지의 모양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린다.
- 15) “墓在慶尙道慶州杞溪縣堂洞壬坐丙向之原有表石上下墳, 南慶州府六十里 西杞溪古縣七八里, 西北伊峴十五里, 永川郡七十里”
- 1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으로 1831(순조 31)년에 발간되었으며, 목활자 본, 9卷, 부보6卷, 별보 6卷, 합 20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책 권두에 서, 범례, 부록, 행정장정도, 묘산도, 세파도가 있다. 묘산도는 18개 지역에 있는 선대의 묘산도이다. 본 연구 대상은 문강공 박소의 山圖와 山論으로 한정하였다.
- 1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潘南朴氏世譜』(奎 1929) 해제 참조.
- 18) 『지리인자수지』에서는 龍의 12格을 설명하고 있다. 生龍, 強龍, 進龍, 順龍, 福龍의 5격을吉하고, 死龍, 弱龍, 退龍, 逆龍, 病龍, 劫龍, 殺龍 등의 7격은凶하다고 보았다.
- 19) <그림 18>을 보면 우측 상단에 가야산 그리고 좌측으로 해인사란 표기가 있고, 亥라는 글자로 물의 득수 방위를 나타냈으며 물의 흐름은 점선으로 표현하였다.
- 20) 위 지형을 <그림 15>, <그림 16>과 비교해 보면 우선 한문표기의 오류는 간과하더라도 산도와 해동지도에서는 비계산과 오두산이, 대동여지도에서는 비학산과 오도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두모산의 위치도 산도와 해동지도는 묘지와 연결성을 갖는 곳에 위치하는데 비해 대동여지도에서는 야로의 아래쪽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지형도를 살펴보다도 대동여지도에서 산맥의 위치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 21) 화암서원의 경우 <그림 15>, <그림 16>을 살펴보면 해동지도에는 화암서원을 상당히 비중있게 그리고 있는데 반해 대동여지도에는 보이지 않고 야노라는 명칭만 보인다. 즉 화암서원은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진 시기에는 이미 패철된 것으로 보인다.
- 22) <그림 15>의 대동여지도에서 지명이 야노인 부분과 <그림 16> 해동지도의 화암서원이 위치한 부분이 문강공 묘가 있는 곳이다. 위의 산맥흐름을 보면 가야산에서 시작한 맥이 비계산을 지나 동쪽으로 직선 형태로 뻗어있다. 하지만 <그림 10>의 文康公墓의 산도는 원형으로 環抱하고 있다. <그림 11>의 지형도를 바탕으로 한 산맥 흐름도를 보면 문강공 산도처럼 완전한 환포는 아니더라도 위의 고지도 보다는 더 환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3) “文康公墓在慶尙道陝川郡治盧縣西華陽洞庚酉申龍亥坐已向未得水辰破有表石築火垣又有神道碑思庵朴淳撰石峰韓濩書”
- 24) “동쪽 야로현까지의 거리가 십리, 남쪽으로 도곡촌까지의 거리가 십리, 서쪽으로 현풍현까지의 거리가

십리, 북쪽의 가야산까지의 거리가 사 십리”라고 거리를 밝히고 있다.

25) “局內有庶五世孫泰龜墓”

문헌

노희방, 1979, 여지도서에 게재된 읍지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배우성, 1996, 18世紀 官撰地圖 製作과 地理認識,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신명호, 1998, 조선전기 왕실정비와 족보편찬 -선원록류와 돈영보첩을 중심으로- 경기사학, 2, 49-71.

오상학, 2005, 옛 삶터와 모습 고지도, 국립중앙박물관.

이수건, 2004,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출판부.

이형윤, 2010, 조선시대 산도를 통해서 본 지리인식,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형윤·성동환, 2010a, 風水書 『地理人子須知』 山圖의 지형표현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1), 1-15.

이형윤·성동환, 2010b, 소령원 산도의 지형표현 연구, 문화역사지리, 22(3), 20-39.

崔陽奎, 2007, 중국 종보와 조선 족보의 비교연구,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한영우·안휘준·배우성, 2003,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서울.

『杞溪俞氏族譜』, 俞命咸(朝鮮) 等編,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704년, 奎1813-00

『潘南朴氏世譜』, 朴宗薰(朝鮮) 編,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831년, 奎1929-00

嚴陵 張九儀先生著 『增補地理琢玉斧』, 竹林書局 영인본(2002)

徐善繼·徐善述 著, 『地理人子須知』, 武陵出版公司 영인본(2002)

Hong Key Yoon, 1992, The expression of landform in Chinese geomantic maps, *The Cartographic Journal*, Vol.29.

大東輿地圖

朝鮮王朝實錄

海東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 교신 : 성동환(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풍수지리관광학과 부교수, dhsung@dhu.ac.kr 전화: 053-819-1328)

Correspondence : Sung, Donghwan(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eng-shui & Tourism, Daegu Haany University, dhsung@dhu.ac.kr, phone: 053-819-1328)

(접수: 2010.12.4, 수정: 2010.12.29, 채택: 2011.1.15)